2024. 1. 23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공간본부 신속통합기획과

('신속통합기획' 총괄)

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

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)

사진없음 □

사진있음 ■

매수: 8매

신속통합기획과장	명노준	2133-1889
신속통합기획2팀장	김현주	2133-8301
주거정비과장	고현정	2133-7190
조합운영개선팀장	김용민	2133-7231

서울시, 석관동 62-1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"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"

- 공원·문화시설 등 이웃과 함께 누리는 편의시설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 지하철역·학교·시장·중랑천 등 주변으로 연계되는 걷고 싶은 생활 가로 계획
- 용도지역 상향 및 조화로운 경관 창출 등 도시계획 유연화로 단지의 가치 제고
- □ 서울시가 성북구 석관동 62-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.
 개발에서 소외된 노후주택 밀집지가 이번 기획을 통해 풍부한 공원을 품고 지역으로 보행이 연계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. (면적 64,876㎡, 1,500세대 내외, 최고 39층 내외)
- □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(20년 이상 건축물 약 96%)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등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다. 또한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·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었다.

- □ 한편,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 및 3개 지하철역(돌곳이역(6호선), 석계역(1·6호선), 신이문역(1호선))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중랑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학교, 시장 등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. 또한 인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,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, 모아타운 개발 등 지역 일대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.
- □ 서울시는 대상지 입지 특성 및 주변 개발잠재력에 주목, 지역에 필요한 공원·문화시설 등을 연계·계획해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어디로든 보행이 연계되는 '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'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.
 - 지난 1년간 자치구, 주민,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, 전문 가 의견수렴 등 수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,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.
- □ 기획안에 담긴 3가지 계획원칙은 ① 공원·문화시설 등 이웃과 함께하는 시설 배치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② 지역으로 연결되며 건고 머물고 싶은 맞춤형 생활공간 확충 ③ 용도지역 및 높이 등 도시계획 유연화로 조화로운 경관 창출 및 단지 가치 제고이다.
- □ 먼저, 대상지 북측에 공원 및 문화시설, 주차장(공원 하부)을 연계·입체적으로 배치해 이웃과 함께 누리도록 했다.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, 특히 저층 주거지의 일조 영향도 고려해 지역 일대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.
 -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저층 주거지 및 시장

이용객의 주차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. 또한 공원과 연계해 배치하는 문화시설과 주차장의 차량 출입구는 문화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통합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.

- □ 두 번째로, 돌곶이역, 돌곶이 시장, 학교,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. 또한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를 계획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주거단지를 조성했다.
 -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보행흐름을 유지하면서 북측 공원 및 문화시설로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, 남북방향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.
- □ 아울러, 각종 시설 및 외부공간도 주민 맞춤형으로 계획했다. 이문차 량기지 복합개발에 따른 중랑천으로의 보행 강화를 고려해 남측 돌곶 이로8길변으로 근린생활시설, 동측 한천로변에는 등하굣길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시설 등 주민수요에 맞는 외부공간 조성으로 소통과 교류가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유도했다.
- □ 마지막으로, 주변 모아타운 개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주 거지와의 조화를 고려해 지역으로 열린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용도지 역을 상향(제2종(7), 제2종주거 → 제3종주거)하고 유연한 층수 계획 을 적용했다. 또한 북측 저층 주거지 및 남측 돌곶이로8길변 등 단지 경계부는 중저층, 단지 중앙에 고층 배치 및 통경축 설정 등으로 리듬 감 있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통해 단지의 가치도 제고하고자 했다.

- 연접한 저층 주거지 일조 및 공원 이용의 개방감 등을 고려해 단지 북측 주거동은 10층 내외로 배치했다. 또한 남측 돌곶이로8길변은 보행이 가 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 가로인 만큼 10층 내외로 배치해 가로 변 위압감을 최소화했다. 또한 단지 중앙은 탑상형 고층 주동(최고 39 층)을 배치해 통경축 및 주변에서 단지 중앙으로 들어올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(△)을 계획했다.
- □ 서울시는 석관동 62-1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□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"석관동 62-1일대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"라며 "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,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"라고 말했다.

석관동 62-1 일대 신속통합기획 참고자료

□ 대상지 현황

○ 위 치 : 성북구 석관동 62-1번지 일대 (64,876 m²)

○ 용도지역 : 제2종일반주거(7층이하), 제2종일반주거

○ 건축물/토지등소유자 : 467동/ 587명



□ 신속통합기획 주요 내용

구분	용도지역	용적률	층수	세대수
현 황	제2종(7층), 제2종주거	_	_	토지등소유자 587명
신속통합기획(안)	제3종주거	285% 이하	최고 39층	1,500세대 내외

□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

○ `22.12.30. :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

○ `23.05.~`24.01. : 신속통합기획 수립 (주민간담회, 주민설명회 등 병행)

○ `24.01. : 신속통합기획안 확정·통보 (서울시→자치구)

○ `24.02. ~12. : 정비계획(안) 입안절차 추진 및 정비계획 결정

〈 종합구상도 〉

-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원
- 인접 저층주거지와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대상지 북측에 접근이 용이한 공원 조성 (문화시설 연계)
- 걷는 즐거움이 가득한 보행 네트워크

대상지 경계를 순환하며 공원 및 광장을 통해 주변지역 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한 녹색 테마공간 계획

- 열린 경관축과 공공보행통로 계획
- 2 남측 생활가로(공동주택 단지)와 북측 공원(저층주거지) 연결 및 기존 보행 흐름 유지 /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

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

중랑천, 천장산 외 학교, 인접 주거지역의 높이를 고려 중앙광장과 함께 상징적인 경관의 랜드마크 주동 계획

-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동선 계획
- 중랑천에서 돌곷이시장, 돌곷이역, 석관초(학교가는길) 등으로 연결되는 보행공간 계획
- 입체적이고 열린 가로의 중첩경관
- 필로티 구조의 혼합형 주동과 주변 가로 환경에 대응하는 편의시설을 통해 중첩 경관을 통한 지역 이미지 쇄신



〈 건축배치 계획안 〉



※ 본 계획(안)은 예시로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〈 단지배치 계획안 〉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



〈 공원 조성 예시도 〉 쾌적하고 즐거운 주거환경과 여가를 고려한 대상지 북측 공원/문화시설 배치



〈생활가로 조성 예시도 〉 생활가로변에 대응하는 연도형 상가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



〈 공공보행통로 조성 예시도 〉 주변으로 열린 남북방향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조성



※ 상기 계획(안) 설명시 사용된 이미지(예시)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임